



“샷을 보여줘” 스코어와 상관없이 위성미의 샷은 늘 구름갈래리를 부른다. 위성미가 1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에서 열린 PGA 투어 존디어클래식 1라운드 경기 도중 관중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지단 박치기 사건’ 20일 FIFA청문회

국제축구연맹(FIFA)이 2006독일월드컵 결승에서 발생한 지네티 지단(34·프랑스)-마르코 마테라치(33·이탈리아) ‘박치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20일(이하 현지시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FIFA는 이날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베를린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에서 마테라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은 지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단은 마테라치가 거듭해서 자신을 자극해 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FIFA는 ‘박치기 사건’을 둘러싼 정황과 이미 착수된 지단, 마테라치 두 선수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두 선수는 18일까지 FIFA에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독일월드컵 결승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하는 지단에게는 상정적인 처원에서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지단은 최소 3천300유로(400만원)의 벌금에 두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마테라치도 최소 두 경기 출전 금지에 벌금 6천600유로(800만원)를 낼 수도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위성미 “아! 힘들어...”

### PGA 존디어클래식 첫날 6오버... 킷통과 어려움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다섯번째 나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첫 통과가 어렵게 됐다. 위성미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파71·6천762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존디어클래식 1라운드에서 6오버와 77타를 치는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지금까지 치른 PGA 투어 대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를 받아 최하위권으로 처진 위성미는 첫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위성미는 2004년 소니오픈에서 처음 PGA 투어대회에 나신 이후 9라운드를 치른 가운데 올해 1월 소니오픈 1라운드 때 79타가 최악의 스코어였다. 특히 쇼트게임과 퍼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과 달리 샷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다. 지난해 이 코스에서 1라운드 70타, 2라운드 71타를 때려 첫 통과에 단 2타 모자랐던 위성미는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는 273야드에 그쳤고 페어웨이 안착률이 50%에 불과한 데다 아이언샷의 그린 적중률은 33% 밖에 안되는 수준 이하의 플레이였다. 10번홀에서 2천여명의 관들이 몰려든 가운데 경기를 시작한 위성미는 11번홀(파4) 더블보기로 초반부터 김이 빠졌다. 티박스에 날아다니는 날파리 때문에 다섯 차례나 어드레스를 풀었던 위성미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숲으로 날아갔고 1번타를 받고 꺼낸 볼도 그린에 울리지 못했다. 위성미는 64타씩을 친 공동선두 그룹 J.P 헤이스, 잭 존슨(이상 미국), 존 샌텐(호주) 등에 무려 13타나 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세리가 14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메도우스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코닝클래식 1라운드에서 1번홀에서 티 오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세리 ‘오! 팬찮아...’

### 3언더파... 선두와 3타차 LPGA 코닝클래식 1R

부활에 성공한 박세리(29·CJ)가 ‘터닝’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녹색 신호등을 켰다. 박세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0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코닝클래식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11위를 달렸다. 순위로는 10위 이내에 들지 못했지만 단독 선두 리셀로테 노이만(스웨덴·65타)과 3타차에 지나지 않아 4라운드 경기 가운데 첫 날을 무난하게 마친 셈.

박세리는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가 아깝기는 했지만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안착률 85.7%에 그린 적중률 83.3%의 안정된 샷을 바탕으로 7개의 버디를 뽑아냈다. 하일랜드메도우스골프장은 박세리가 지금까지 네 차례 우승을 일궈내면서 일곱차례 톱 10에 올랐던 ‘안방’이다. 지난 4월 내추럴 채리티 챔피언십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을 상대로 역전 우승을 일궈냈던 2년차 임성아(22·농협한삼인)가 5언더파 66타를 때려내 공동 2위에 나섰다. 박세리에 앞서 재기에 성공한 김미현(29·KTF)도 3언더파 68타를 치면서 우승 경쟁에 뛰어든 채비를 갖췄고 김초롱(22)도 3언더파 68타로 박세리, 김미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동성고 양현종 등 6명 청소년야구 국가대표

### 허세환 광주일고 감독 대표팀 사령탑 맡아

초고교급 투수 양현종(18·동성고)과 좌타자 김강(18·광주일고) 등 광주·전남 지역 고교생 6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무대 정벌에 나선다. 사령탑은 허세환 광주일고 감독이 맡았다. 대한야구협회는 9월 17~27일 쿠바 산티 스피리투스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대표팀 사

령으로 허세환 광주일고 감독을 임명하고 양현종 등 선수 18명을 14일 발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양현종, 임익준(이상 동성고), 김강, 전주수, 김남석(이상 광주일고), 김선빈(화순고) 등 6명이 뽑혔다. 포지션별로는 투수진에 양현종을 비롯해 김광현(안산공고), 이우찬(장충고), 이상화, 이재곤(이상 경남고), 이우환(공주고), 임태훈(서울고) 등 고교 정상급들이 총 집결했다. 타석에서는 지난 4월 대통령배 대회에서 타격부분 4관왕을 거머쥔 ‘거포’ 이두

환(장충고)을 필두로 김남형(인천고), 김강 등이 합류했다. 2004년 대회에서 3위에 오른 한국은 12개국이 참가하는 올해에는 미국, 쿠바 등 강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9월 7~13일 강화훈련을 실시한 뒤 같은달 14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한다. 다음은 청소년대표팀 명단. ▲감독 = 허세환 광주일고 감독 ▲코치 = 이종은 경남고 감독, 홍상욱 성남서고 감독 ▲투수 = 양현종(동성고), 김광현(안산공고), 이우찬(공주고), 임태훈(서울고), 이우환(장충고), 김남형(인천고), 김강, 김남석(이상 광주일고), 김선빈(화순고) ▲외야수 = 전주수(광주일고), 황인권(장충고), 이천웅(성남서고)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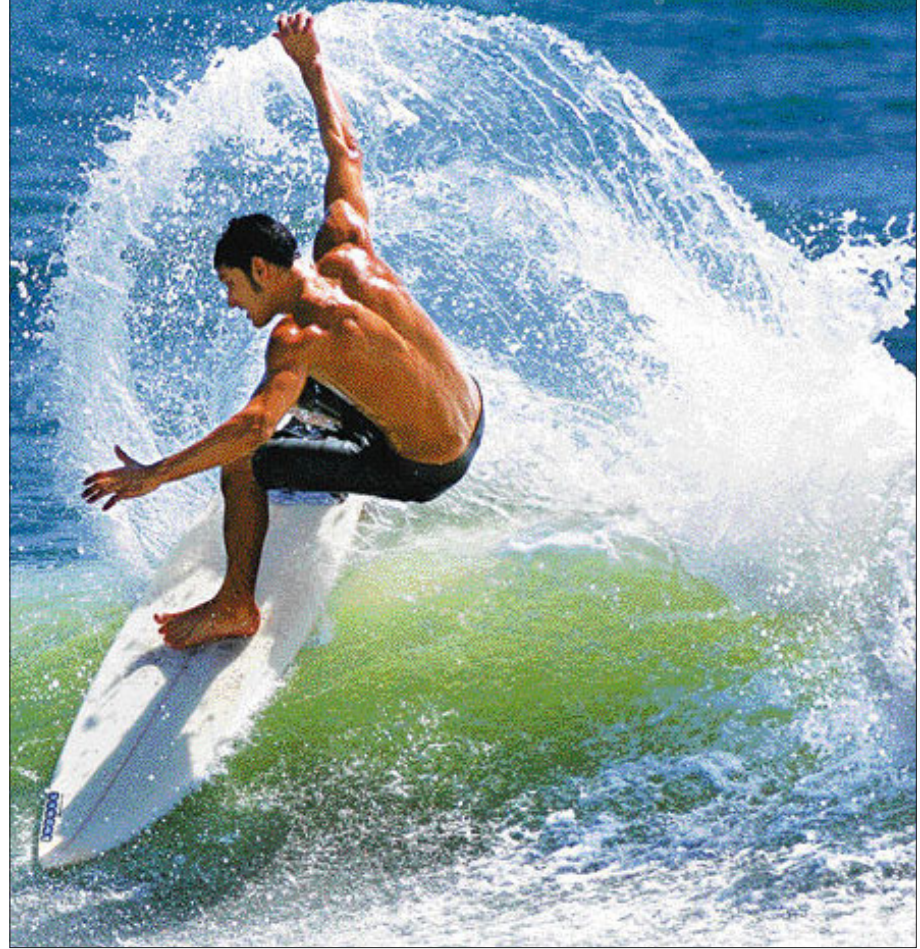
## K-리그 돌아왔다

### 광주·전남 오늘 홈경기

장맛비의 지루함을 날려줄 프로 축구 K-리그 2006 삼성 하우젠컵이 15일 오후 7시부터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열린다. 2승 2무 4패로 12위에 랭크된 광주 상무는 이날 오후 7시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인천유나이티드를 불러들여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말년 병장’ 정경호의 다리 부상으로 공격무트에 공백이 생긴 광주는 ‘형제 불사조’ 남궁용, 남궁도와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정윤성을 앞세워 인천의 골문을 뚫겠다는 각오다. 전남 드래곤즈도 이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으로 부산을 불러들여 상위권 도약의 제물로 삼는다. 전남은 현재 4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컵 대회 3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추신수 마이너리그로 빅리그 진출 10일만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추신수(24·시애틀 매리너스)가 열흘 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됐고 빅리그 승격 기대를 부풀렸던 최향남(35·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은 부상자명단에 올랐다. 시애틀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외야수 추신수를 마이너리그 트리플A팀 타코마 레이니어스로 내려 보내고 대신 애덤 존스(21)를 빅리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일 시애틀의 주전 중견수 제레미 리드(25)의 부상으로 올 시즌 처음 빅리그 무대를 밟았던 추신수는 열흘만에 마이너리그로 추락했다. 외로운 미국행을 선택해 호투하던 ‘퐁운야’ 최향남도 동료 외야수 프랭클린 구티에레스의 마이너리그 강등에 불똥이 튀었다. 클리블랜드는 구티에레스를 마이너리그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로 내려보내면서 구티에레스의 로스터 자리를 확보하려고 최향남을 부상자명단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향남의 자세한 부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척살 물보라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빌리노 비치에서 현지 서퍼가 화려한 서핑모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Includes details for 15th and 16th of the month regarding K-League matches and other sports events.